

# 10년후 한국 종교는? ... '위기'

'10년후 한국사회의 종교분포도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 "NO!"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NGO 관계자들이 모여 종교지형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사)불교아카데미와 개신교 제3세대그리스도교연구소, (사)가톨릭의 우리신학연구소 공동주최로 9월 1일 만해 NGO교육센터 열린 '2005 인구센서스 결과로 살펴 본 한국의 종교변동 전망 집담회'에서다.

불교계 참석자들은 가톨릭의 성장과 가능성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개신교 참석자들은 인구센서스에서 결과와 원인에 대해 개신교계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가톨릭은 애써 표정관리하는 표정

## 불교·개신교·가톨릭 NGO 모여 미래 진단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다원적 사회 만들자"

이 역력했다. 그러나 전망에 있어서는 3개 종교 참석자 모두가 '위기'라는 반응이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교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본질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앙의 개인주의화와 권력화, 계급화 문제는 종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기 또는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교의 위기에 대해 차차석 동국대 강사는 신도들에게 불교적인 가치를 확고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절대신자층이 타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한 불교는 신도들이 언제든 지 개종할 수도 있고 교단을 떠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

가톨릭측 참석자인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은 "가톨릭의 성장은 결속력과 공신력, 봉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미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가톨릭은 신앙의 개인주의화, 권력화, 증상층의 종교 인식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적요소로 인해 10년후엔 지금의 개신교처럼 왜 우리는 정체 또는 퇴보하는가를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신교측 장운재 목사는 "인구센서스 결과가 교회에 민중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가톨릭과 불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다원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각 종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인구센서스 통계 결과에는 드러나지 않은 종교환경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 여성 지혜로 세상 보살피자

불교여성개발원, 9월 20일부터 리더십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불자여성 지도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여성리더십교육'이 9월 20일부터 3개월간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리더십 교육은 불자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도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여성의 지혜로 세상을 보살피자'를 주제로 매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여성리더십 기초의하기' '나와 남 이해하기' '여성리더십 실천 악하기' '진정한 여성리더십'로 구성되는 11차례의 기본교육과, 10월 28일 서울 만해NGO교

육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으로 이뤄진다. 김인숙 원장을 비롯해 이화영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강사, 김일명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장, 진민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나의 비전 만들기' 워크숍은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의 지도로 자신의 비전을 세워보고 이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5만원. (02)722-2101

여수령 기자

## 국제구호활동가 상생방안 모색

실무경험 나누고 공동 실천강령 제정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단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활동방안을 모색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15~16일 서울 도봉산 숲속마을에서 '국제구호사업 사례와 실무'를 주제로 국제협력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경블린 이웃을돕는사람들, 능인선원 YBA 등에서 활동하는 40여 활동가가 참가하는 워크숍은 불교계 국제사업 주체간의 네트워크 조성과 관련 활동가들의 실무 역량 증대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 특히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심

도깊게 논의한 뒤 공동의 실천강령을 제정한다.

워크숍 첫날은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운영관리부장, 박지나 한국JTS 해외사업본부장, 김동훈 지구촌공생회 기획과장, 이종남 YBA 정책실장 등이 불교계의 국제구호활동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다.

둘째날에는 외부 해외원조단체 활동가들의 발표와 불교계 활동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해외원조사업의 도움말 발표는 한재광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조정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팀장이 맡았다.

박병영 기자

## BBS 사장후보 흥승기·이수덕씨

진흥원 추천...8일 최종 1명 선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흥승희)은 8월 28일 신라호텔에서 제120차 이사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후보로 흥승기(52) 동국대교수와 이수덕(58) 前 불교텔레비전 사장을 최종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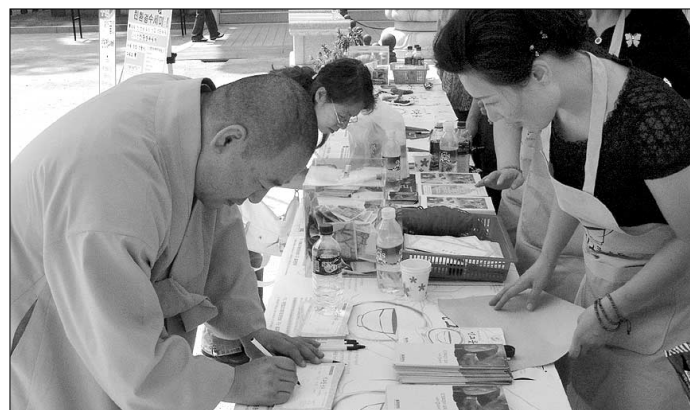
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5명의 불교방송 사장 추천후보에 대한 면접심사 등의 결과를 종합

해 2명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진흥원은 흥승기 이수덕씨 2명을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회의(이사장 도후)에 사장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불교방송은 9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을 최종 1명을 불교방송 사장으로 확정한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빈그릇운동'에 서명하고 있다.

## "빈그릇운동 동참하세요"

지구촌 한 편에서는 음식이 넘쳐 버리는가 하면, 또 어느 편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만3천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지하철 노선 7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다.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농부의 노고가 담겨있으니...' <소심경> 자연을 소중히 여겼던 불교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는 불교환경연대의 빈그릇운동이 8월 3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캠페인에서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해 200여 불자와 참배객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동참자들이 낸 1000원의 동참금은 불우이웃과 서약캠페인에 각각 50%씩 사용된다.

박병영 기자

## 동국 '시네마타운' 운영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9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동국 시네마타운(영화상영)'을 운영한다.

경주시민 및 중고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화 관련 전공교수의 동영상 강의 후 영화가 상영된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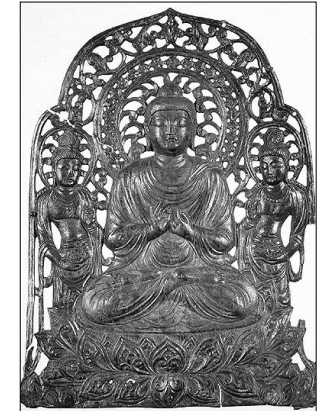
## 인안지 출토 금동판불상

보물 제1475호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1일 인안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 10점을 보물 제1475호로 지정했다.

'인안지 출토 금동판불상(사진)'은 판관한 금속판을 뒤쪽에서 두드려 불상면이 튀어나오도록 제작한 판불이다.

주조기법 및 기량이 뛰어난 10점의 인안지 출토 판불상들은 7세기 말 통일신라 초기에 세로이 유입되는 국제적인 조각양식을 반영했으며, 당시 한·중·일 불교조각의 양식비교 및 전파과정과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인안지 출토 금동판불상 10점의 상들은 하나의 삼존불상과 네보살상이 한 세트로 두 종류의 소형 목제 불감과 같은 구조물에 부착되어 예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병철 기자

## 목탁소리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조계종, 달마넷, 중앙신도회, 조계사, 능인선원, 월정사, 다솔까페 불교문화사업단의 정기로 문화인연, 네이트 연꽃나라, 네이버 북다와 함께 하는 책어행 온라인 회원 등을 대상으로 '불교 네티즌 성향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설문 조사 표본 선정에 있었다. 조계종, 달마넷, 중앙신도회 등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불교 네티즌 성향파악'을 했다 고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설문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달마넷 개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달마넷의 콘텐츠 등에 관해 보충하거나 개선해야 할 질문은 빠져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곧바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스님이 직접 오류를 시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사업단은 다 시 한 번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달마넷 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얼마든지 많다고 본다. 한국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는 일도 시급하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신입생 모집

### 서화에술분야

과정구분	담당교수
한글서예실기	노승환
한문서예실기	권인호
전각에술실기	노승환
문인화 실기	하영준
채묵화 실기	하영준
민화진채	서공임

### 미래예측분야

과정구분	담당교수
주역연구	신성수
명리에측	한승철
사주내정	윤예지
실전사주	김동현
실전육효	김용연
육임실과	류창남
풍수지리	정경연
현장풍수	박상만
구성학	한인수
천문학	김희수
인상경영	나광영
관상학	최인영

### 명상요가분야

과정구분	담당교수
명상치료	인경스님
상담심리	박희석
실천요가	임동호
실전기공	최원섭
실전검도	이양환
스포츠마사지	최인호
교정요법	조혁태
식이요법	최재삼

### 최고위 지도자 과정

과정구분	담당교수
풍수지리 최고위 지도자과정	최병용
현공풍수 최고위 지도자과정	이공원
명리학 최고위 지도자과정	유방현

### 모집안내

- ◆ 접수기간 : 2006년 9월 중
- ◆ 개강 : 2006년 9월 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사진 (3×4cm) 2매
- ◆ 홈페이지 : www.dongbang.ac.kr
- ◆ 접수방법 : 방문 / 전화상담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 전화상담 : (02)745-8053